

Introduction to Drug Utilization Review

박 병 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약물사용(Drug utilization)은 “약물의 처방, 조제, 투여 및 복용”으로 정의되어 왔다. WHO는 결과변수를 포함시켜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에 특히 중점을 둔 약물의 시판, 유통, 처방 및 사용”으로 정의를 확장시켰다.

약물사용양상분석(Drug Utilization Review, DUR)은 부적절한 처방을 최소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사용양상을 해석하는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Drug use review, drug use evaluation, medication use evaluation 등이 DUR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시간 제한적이고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 약물사용연구(Drug utilization study)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DUR의 주된 목적은 적절한 약물요법을 통하여 환자진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약물사용에 대한 질관리(Quality control)와 질보증(Quality assurance)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질관리는 치료과정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선택, 투여용량 및 투여기간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이고, 질보증은 약물요법에 의한 결과, 즉 질병으로부터 회복률, 질병의 사망률 또는 재발률 등을 유의하게 변화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DUR은 그 과정이 순환적이고 동적인 특성을 지닌다. 즉,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표준 처방의 범위를 결정하고 약물처방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여 약물사용양상을 분석한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다음 다시 판정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DUR 프로그램은 크게 후향적 DUR 프로그램과 전향적 DUR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향적 DUR 프로그램은 특정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이미 약물처방이나 약물의 복용이 일어난 이후에 약물사용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약물처방에 관한 자료의 질적, 양적인 수준에 의하여 분석내용 및 그 결과의 활용성이 좌우된다. 전향적 DUR 프로그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약물을 처방하였을 때 약사가 처방된 내용의 약물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건네주기 전에 환자의 질병과 과거력 및 현재 복용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치의와 약물요법 내용의 변경 등을 상의하여 적절하게 조치함으로써 약물요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DUR 개념이 소개되고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로 병원 또는 지역사회 약국의 실무에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의약품 시장, 밀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의약품 등 빠르게 변화되는 의료여건 하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약물요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의사와 약사들이 새로운 의료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질 높은 약물요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 DUR을 조속히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라 하겠다. 거대한 의약품 시장으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병원, 약국 등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평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정착된다면 적절한 약물요법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더불어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